

# 휘발유값 80일째 ↓ ... 광주·전남 평균 1300원대

자유가 현상에 따라 광주·전남 주유소 기름 값(휘발유 기준)이 리터(ℓ)당 평균 1300원대에 진입했다. 10일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광주 1378.54원, 전남 1395.76원이었다. 전국적으로도 1394.80원을 기록했다.

이란과 미국산 원유 수출 재개 등 당분간 국제원유 시장에서는 공급과잉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이라는 변수는 있지만 당분간 기름값이 추가 하락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12일 1501.37원을 기록한 이후 80일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주유소 중 58.5%인 6947곳에서 휘발유를 ℓ당 1400원 이하에 판매하고 있다. 22곳(0.2%)에서는 1300원 밑으로 가격을 내렸다.

광주 1378원, 전남 1395원 ... 전국평균 1394원

국제 유가 하락에 내림세 지속 ... 환율이 변수로

이날 현재 전국 최저가 주유소는 ℓ당 1245원에 휘발유를 팔고 있다.

휘발유 뿐만 아니라 경유는 이미 ℓ당 1200원선이 무너졌다.

이날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174.22원이며 광주는 1160.94원, 전남은 1177.14원이었다.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ℓ당 13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2009년 1월 22일(1384.36원) 이후 7년 만이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올해 들어 국제유가 급락의 여파가 반영된 지난 2월 5일 1409.74원

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오름세로 전환해 지난해 6월 29일에는 1584.88원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세라는 요인이 겹치면서 대세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유업계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진입에서 나아가 당분간 휘발유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휘발유 제품(02RON) 가격은 지난 6월 둘째 주 연간 고점인 584.83원에서 12월 둘째 주 382.56원으로 180원가량 떨어졌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역시 같은 기간 624원에서 435원으로 190원 가량 인하했다.

반면 주유소 판매가격은 1584원에서 1456원으로 130원가량 떨어져 아직 국제유가 하락분이 다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변수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일정기간 변동이 없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20% 상승하면 정유사 공급 가격에는 20% 만큼의 가격 인상이 발생한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25일 1144원에서 7일 1196.50원까지 상승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당분간 휘발유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휘발유값 1200원대 주유소 휘발유값 하락 추세가 계속되면서 광주·전남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300원대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 홈플러스, 호텔예약 앱 '별별호텔' 출시

별 9개 모으면 1박 무료

회원가입 5% 할인 쿠폰

홈플러스는 10일 "호텔 예약 사이트 호텔조인과 함께 모바일 호텔 예약 앱(응용프로그램) '별별호텔'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앱으로 국내의 호텔을 예약하면 숙박일수에 따라 별(★) 포인트를 주는데 별 9개를 모으면 1박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아울러 호텔조인 적립금을 기존 1%에 추가로 1%를 얹어주고 홈플러스 전용 특가 상품도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는 앱 출시를 기념해 3월 31일까지 회원가입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호텔조인 적립금 5000 포인트와 국내의 호텔 5%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홈플러스 서비스상품본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렌터카와 항공권 서비스 기능도 앱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별별호텔은 지난해 10월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서비스 대상은 국내외 7만여 개 호텔이다. /연합뉴스

## "설 선물세트 온라인 판매가 대세"

이마트, 지난해 설보다 182% ↑

이마트는 10일 "설을 앞두고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한 결과, 온라인 판매 신장률이 오프라인 판매 신장률의 두 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사전예약 판매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쇼핑을 통한 판매 신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4% 성장, 이 기간 오프라인 매장 신장률(92.8%)의 두 배 수준이었다.

이번 판매 기간 설 선물세트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로 지난해 설

(8.0%)보다 3.0%p 성장했다. 온라인 중에서도 특히 모바일을 이용한 구매 비율은 40.0%를 차지해 지난해 추석(18.4%)과 비교해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물세트 구매가 늘어난 것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편리성과 온라인 구매에 대한 다양한 혜택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마트몰은 선물세트 온라인 쇼핑 고객이 삼성, 국민카드 등 8개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0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과 5%의 카드 청구할인 등 추가 혜택을 준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유가하락·中 시장 불안 지속

北 핵실험 겹쳐 하락세

계약 바이오·전기차에 관심을

새해를 맞아 1월 효과를 기대했던 국내증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중국의 위안화 절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과거 대북억제 때마다 일시적 조정 후 반등을 경험했던 국내증시는 북한핵실험에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위안화 절하에는 국내증시 뿐만 아니라 중국과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증시는 대주주 매도제한 해제에 따른 매물우려와 위안화 가치급락이 촉발한 핫머니 유출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공포심리가 투매로 나타나며 지난주 7일 개장 29분만에 7% 넘게 하락해 조기 마감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중국증시 폭락의 원인이 되었던 위안화 약세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난해 8월 11일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결정방식을 시장변동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며 기술적으로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사상최대폭인 1.86% 올려 위안화 평가절하를 고시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작년 11월 30일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의 구성통화로 결정되기 전까지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달러를 매도하며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았다. 이는 IMF가 위안화의 SDR 편입요건 중 하나로 통화가치의 안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7월 이후 6,620억달러의 외환 누적보유고를 감소시키며 위안화의 시장안정을 유도했지만 위안화가 SDR편입이라는 목적이 달성된 후 중국정부의 개입은 약화되었다.

최근 중국정부는 인민은행이 2014년 11월 중국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인하를 시작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외국인 자본 유출을 우려해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중국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당국은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최근 증시급락시태 수습을 위해 8일 시장의 예상과 달리 달러대비 위안화환율을 0.015% 낮춰 고시하며 시장에 위안화 안정을 요구하고 대주주지분 매각제도 개선과 서킷브레이크 제도를 일시 중단시켰다. 안정화대책에 따라 중국증시와 코스피지수는 상승마감했다. 하지만 당분간 시장은 위안화 환율 정책의 방향과 환율 움직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중국상해종합지수는 -9.97% 하락세를 보였고 다우지수는 -6.19%, 나스닥지수 -7.26%, 니케이225지수 -7.01%로 글로벌 증시가 동반 급락했다. 코스피지수도 -2.24%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주 1월 효과에서 코스닥지수와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를 언급했는데 지난주 제약주와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닥지수와 중소형주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까지 유가하락과 중국시장불안요인이 지속되며 외국인인 거액소시장에서 25일 연속 순매도를 보였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의 시장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약바이오 업종과 전기차관련주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 NPL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NPL대출 전국 특수 물건 90%한도 6.5%~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중도상환 無

## 화순RPC공장채권 매각

토지 2070평 건물 449평 기계기구일체 7억상당  
채권최고액 11억4천만원 전액 배당금 확보 됨.  
채권매각가 9억원 문의 담당자 : 010-4557-3034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